

# 어깨 펴고 산업보건을.....



대한산업의학회장, 가톨릭대의대 교수 박정일

산업의학에 입문한지 30년이 된 올해도 이제 달력 한장 남기고 있다. 기여한 바 별로 없는데 세월이 산업의학회 회장직을 맡게 하니 능력 생각하면 백번을 고사했어야 했는데.....

10년이 세 번 흐르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 변화는 산업보건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거창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기업체도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의학회, 산업위생학회, 산업간호학회가 발족되고, 산업의학전문의를 위시한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고, 소규모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건관리대행제도가 주요 산업보건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많은 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수은, 크롬, DMF, TCE, CS<sub>2</sub> 등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새로이 발견, 문제화 되었으나 소음성 난청을 포함하여 발생·보고되는 직업병자 수는 88년 대비 25% 남짓으로 dramatic 하게 감소하는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10여년 전 필자는 앞으로의 직업병 발생예 측에 관한 발표에서 유해물질 노출근로자

수의 증가, 긴 잠복기, 장기간에 걸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새로운 유해물질의 출현, 진단기술의 발달, 직업병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주를 포함한 사회인식의 변화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직업병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보기 좋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예측이 빗나갔지만 과연, 그것도 10여년 사이에 1/4로 감소되었다고 믿어도 되는 것인가?

새삼스럽게 일본의 직업병 발생 통계를 들이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몇가지 교훈적 사건이 있었다. 83년도에 반월지역 일부에서만 62명의 연중독이 진단되었으며, 87년에 수십 명의 수은중독이, 88년도에 영등포지역 중심의 크롬도금사업장 건진에서 251명의 비중격 천공이, 그리고 같은 해 인조견사 생산공장에서 400명 이상의 이황화탄소 중독이 발견·보고된 것이 그 예이다.

참으로 많이 증가된 산업보건 전문기관들과 전문 인력이 고도의 직업병 색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업병 걱정에서는 벗어나고 있고 직업관련성 질병을 걱정하고 진단과 관리에 거의 온갖 충성을 기울여도 되는 여건이 마련된 것인가?

만일 최근의 직업병 통계의 신뢰도에 염려될 부분이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일까? 많은 요인들 중 가장 큰 요인 하나만 들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필자는 감히 소신진료, 소신판정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들고 싶다.

어깨를 펴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신경 쓰면서 제한된 검사에 의존하여 자신감과 자

긍심을 접어두고 진료·판정하는 경우가 혹여 흔한 것은 아닌가?

매년 또는 임시 건강진단시 상당수의 직업병이 보고 되고 있는 사업장과 동종업종에, 유사 공정에, 유사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사업장임에도 직업병 보고가 0이면 안전한, 훌륭한 사업장인 것일까?

제대로 된 산업보건은 존재하고 있는 산업보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 평가하거나 아니면 근접한 추산된 자료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기본부터 신뢰가 결여되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단계별 점검을 소홀히 하고 고충빌딩을 빨리 지으려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쉽지 않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직업병부터 시작하여 산업보건 문제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여 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애써온 노력이 헛되지 않게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믿으며 2003년이 그 원년이 되었으면 희망한다.

흔히 제도적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소신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소속기관, 사업주, 근로자 때로는 정부로부터의 정체성의 uncertainty는 소신있는 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외면할 수는 없다. 방법을 모르는 바 아니나 x이 제머리를 깎을 수는 없지 않은가?

요즈음 멋모르고 산업보건을 하는 후학들이 있기가 하겠나만 그들이 어깨를 펴고 산업보건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산업보건 발전의 기본이라고 굳게 믿는다. 긍정적 여건과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제까지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산업보건을 해온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한문**